



사회 >> 3면
기후동행카드'의 불편한 실정

기획 >> 6면
MBTI로 알아보는 서경대에서 살아남기

현장르포 >> 7면
임무휴업일 전환의 허와 실, 대형마트를 둘러싼 희비교차

제577호
2024년 3월 15일(금)

“입학을 축하합니다” ... ‘2024학년도 서경대학교 신입생 문화제’ 개최

2월 26일, 27일 이틀간 수인관서 신입생 1,558명 맞이해



지난 2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서경대학교 수인관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문화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올해 신입생 1,558명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서경대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교수진, 총학생회, 학생회장단, 학과 대표 학생 등이 참석했다.

첫째 날인 2월 26일 14시, 음악학부의 입학 축하 공연으로 신입생 문화제의 개식을 알렸다. 이후 국민의례와 입학허가 선언이 이뤄지며 본격적인 입학식이 진행됐다.

다음으로 김준 대외협력부총장이 김범준 총장의 신입생 환영사를 대독했다. 김 부총장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서경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입생들의 입학에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면서 “꿈과 희망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 수석 입학자인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이재원 학우(수시수석), 나노화학생명공학과 이호재 학우(정시 수석)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보직교수 및 학과장 소개, 학생과 교수의 간담한 상견례 후, 다함께 교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입학식을 마쳤다.

이어서 진행된 총학생회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제52대 중앙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 소개, 총학생회비 납부와 교내 주요시설 안내, 등하교 교통편과 지하통로 소개가 이뤄졌다. 쉬는 시간 이후 재학생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16시부터는 학과별로 지정된 강의실에서 수강 신청을 진행했다.

둘째 날인 27일 14시, 서경대 학생군사교육단(ROTC) 소개로 신입생 문화제의 막을 열었다. 이날 총학생회는, 전날 나눠줬던 리플릿 맨 뒷면에 적힌 행운의 번호를 랜덤으로 호명 후 상품을 추첨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또한 메인관 파워버튼, 유담관 전광판 'Skon'을 잡아 두 곳 중 한 곳을 사진 촬영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업로드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추후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 이벤트 상품으로 이

마트24 이용권 5천 원권이 지급됐다. 이에 더해 총학생회는 ‘반말해’라는 코너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신입생들과 반말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보냈다.

다음으로 실용음악과 재학생들과 교내 동아리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다채로운 공연으로 무대를 꾸며 신입생들의 환호와 탄성을 자아냈다. 총학생회 행사와 공연이 끝난 뒤 인문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 예술대학은 각각 교내 문예홀, 컨벤션홀, 수인관에서 단대마당을 열었다. 각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소개,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신입생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다.

서경대학교 제52대 한술 총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쉬는 시간 화장실과 휴먼구역을 비롯하여 하룻길 통솔까지 안전을 위해 만전을 다했다. 2024학년도 신입생 문화제는 안전관리 스태프와 학생회장단들의 통솔 아래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편 무사히 행사를 마친 한술 총학생회는 추후 개최할 행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송민경 기자
(tildawn012@skuniv.ac.kr)

“학교가 좋아졌어요”

‘수유리 우동집’, ‘노브랜드 버거’ 청운관 입점



올해 1학기부터 학생들의 교내 식당 이용이 편해질 예정이다. 지난 2월 26일, 지난해 여름까지 영업했던 청운관 학생 식당 자리에 새 식당이 발을 들였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위로’ 총학생회에서 시행한 학생 식당 개편 의견 수렴 설문조사에서 청운관 식당은 70.8%(182표)로, 본교 3개의 학생 식당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비선호 식당으로 선정됐다. 학우들의 입점 선호 형태는 프랜차이즈가 84.4%(217표)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영업이 종료된 청운관 학생 식

당 자리에 ‘수유리 우동집’과 ‘노브랜드 버거’가 입점했다.

청운관 식당 자리에 새 가게들이 들어서며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학우들이 다양한 학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고홍보콘텐츠학과 A 학우는 “학식이 별로라 밖에 나가서 먹거나 안 먹고 집에 간 경우가 많았다”며 새로운 식당이 영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학교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북악관에는 3월 4일부터 ‘GS25 편의점’이 운영을 시작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개편된 ‘부·복수전공 제도’, 주요 변화와 논란은?

전공 신청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신청 및 이수 조회 화면입니다.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신청 및 이수 현황

복수전공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은 2024-02-22 10:00부터 2024-02-28 23:59 까지입니다.

- 복수전공 신청 및 이수 현황으로 상세 사항은 표 상단 [상세 보기] 기능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 2024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신청 기간은 2024-02-22부터 2024-02-28 까지로 신청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한 내 전공 신청 관련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의 시작과 발맞추어 서경대학교가 부·복수전공 제도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교무처는 지난 12월과 1월, 본교 홈페이지에 연이은 공지문을 게시하며 부·복수전공 제도의 변화를 알렸다. 일각에서는 본 개편안이 23학년에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직전 학기까지의 부·복수전공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어려웠다. 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측은 학생의 신청서와 성적 증명서를

확인한 후 전공 이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졸업 예정자가 아닌 재학생들도 온라인 포털 시스템을 통해 부·복수전공을 신청한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매 학기 1, 2차로 부·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1차 신청은 수강 신청 시작 전 1주일 이내이며, 2차 신청은 수강 정정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4년부터 부·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1, 2차 신청 기간 안에 이를 신청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 전공의 교과 이수를 시작해야 한다. 부·복

수전공을 기이수 중이던 학생들이나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경영학부와 같은 학부 내 복수 전공생들도 모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23학번'이다. 교무처에 따르면 22학번 이전의 학생들은 포털 시스템을 통해 졸업 전 1회만 신청하면 이전의 수강 내용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23학번의 처지는 다르다. 교무처는 공지문을 통해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부·복수전공은 승인받은 학기부터 시작하며, 승인 전 이수한 교과목은 3학점까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복수전공을 이수할

계획으로 1학년, 즉 작년엔 타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한 23학번의 경우, 해당 수강 내용은 3학점까지만 부·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된다. 그 이상 취득한 학점은 모두 전공이 아닌, 일반 선택으로 남게 된다. 이에 일부 23학번 학생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학교는 “현재로서 의논된 사항은 이것이 전부다. 추후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는 있다”는 불명확한 입장만을 전 해왔다.

서경대학교가 일부 학생들의 입장을 헤아려 본 개편안을 다음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알림장	
3월 4일	2024학년도 1학기 개강
3월 4일 ~ 8일	1학기 수강신청 정정
3월 8일	폐강 공고
3월 11일	폐강수강정정
3월 28일	수업일수 1/4선



신입생 여러분들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서경대 풀잎봉사단,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진행 ... 3.65kg로 전한 365일의 따뜻한 행복



지난 1월 27일, 서경대 풀잎봉사단이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나눔코리아가 주관한 사랑의 연탄나

눔 봉사활동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이날 봉사를 통해 지

역 내 연탄 지원 대상자 37구에 연탄 1,000장과 패딩이 전달됐다.

봉사에 참여한 서경대 학우 29명은 오후 2시경 노원구 소재의 주거지에 모여, 봉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우비를 거꾸로 착용한 후, 비닐장갑 위에 목장갑을 껴 테이프로 봉인해 연탄재가 닿지 않도록 했다. 나눔코리아 주최 측은 "연탄을 나르는 여러분의 힘이 모여 이곳이 웃음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추운 날 뜻깊은 활동 해주려 와서 감사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현수막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했다.

학우들은 연탄이 쌓여있는 장소부터, 전달 가정의 창고까지 양팔

간격을 두고 일렬로 서서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다. 연탄을 하나씩 받을 때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며, 목표 개수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연탄을 운반했다. 연탄이 무거워 지질 법도 했지만,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빠르게 진행되어 예상보다 한 시간 이른 4시경에 연탄나눔을 끝마쳤다.

봉사를 마무리 지은 후, 목장갑과 마스크가 까맣게 물들었음에도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봉사에 참여한 이예은(아동21) 학우는 "연탄 봉사를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풀잎봉사단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게 되어 참여하게 됐다"라며 "연탄이 생각보다

무겁고 잘 부서져서 모두 나르려면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 같이 합심해서 나랐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방학 기간 중 우리 학교 학우분들과 함께 만나 봉사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했고 뜻깊은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사랑의 물레산타'에 이어 '연탄나눔'까지 방학기간 두 개의 봉사를 마친 풀잎봉사단은 개강 후에도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전파할 예정이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서경대학교 대학혁신추진사업단, '7대 대학 연합 2023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사례 성과 포럼' 성료

지난 1월 4일(목) 오후 1시 30분 서경대학교 본관 8층 컨벤션홀에서 '7개 대학 연합 2023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사례 성과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전주대학교와 함께했다.

이번 유튜브로도 생중계된 포럼은 김범준 서경대 총장의 환영사와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 2

부로 나뉘어 각 대학의 혁신 인재 양성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1부에서는 ▲전주대 한동승 지역 혁신센터장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혁신과 리빙랩' 사례 발표 ▲서원대 이지혜 교육혁신원장의 '지역과 함께하는 SU-Glocal 인성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례 발표 ▲세명대 한송이 CHARM 경험교육 센터장의 '성장하는 학생과의 만남 : CHARM 좋은 경험 인재상' 경험

교육 브랜딩 구축 사례 발표 ▲명지대 대외협력홍보팀 강영환 팀원의 다양한 활동을 연계해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한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인재 양성' 발표가 진행됐다.

2부는 ▲세종대 문성철 학술정보원 교장의 '학술정보원 감성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례 발표 ▲서경대 박은정 공연예술학부 무대패션 전공 교수의 'HUB Performing Arts & Gala - 해외기업과의 협업'을 주제로 한 교과·비교과 연계 실무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례 발표 ▲건국대 'KU:Super Rookie'에 참여한 김홍식, 김수진 학생의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성과 발표로 이루어졌다. 특히 박은정 교수는 2023년 글로벌 기업 Kohler의 150주년 기념행사 콜라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성과와 프로젝트 수행을 계기로 탐장으로 활동한 이



▲ 출처 : 서경대학교 홈페이지

수현 학생의 워드미라노 이탈리아 파견 인턴십 참여 등 참여 학생들의 성과를 발표했다.

각 세션 종료 후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대학혁신과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석영 서경

대 대학혁신추진사업단장(전략사업&예산처장)의 폐회사로 혁신대학 공동 성장 및 발전의 바탕이 될 이번 포럼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학과 변경 등... 반복되는 폐과와 통폐합에 골머리 앓는 학생들

2024학년도 입학기에 앞서, 서경대학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여러 학과의 명칭이 변경됐다. 아동학과는 아동청소년학과로,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는 코스메

틱&뷰티테라피학과로 변경됐다. 폐과와 신설에 대한 소식도 있다. 광고홍보콘텐츠학과가 폐지되고 광고홍보영상학과가 신설됐다. 명칭은 비슷하지만 광고홍보콘텐츠

학과가 인문사회과학대학 소속인 것에 비해 광고홍보영상학과는 디자인영상대학 소속이다. 게다가 신입생 모집 방법과 커리큘럼이 모두 바뀌었으므로 사실상 다른 과로 치부된다.

광고홍보콘텐츠학과 폐과에 많은 재학생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해당 학과는 불과 3년 전, 많은 학생들의 반발과 논란 속에서 문화콘텐츠학과에서 학과명을 변경한 학과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화콘텐츠학과 또한, 지난 2017년 국어국문학과와 철학과를 통폐합하고 만든 학과였기에 재학생들 사이의 논란은 가중됐다.

광고홍보콘텐츠학과뿐만 아니라 서경대학교 내에서의 폐과와 통폐합

은 전 학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학부 같은 경우 세부분공이 폐지되어 커리큘럼이 획일화됐고, 글로벌비즈니스 노어 전공은 신입생을 받고 있지 않다. 나노융합학과와 화학생명공학과가 합쳐져 나노화학생명공학과가 됐으며, 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가 합쳐져 전자컴퓨터공학과가 됐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뚜렷한 계획이 있는 통폐합인지 의문을 표하고 전공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설명이 부족한 것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계속해서 바뀌는 과 명칭과 커리큘럼, 반복되는 통폐합 속에서 재학생들은 혼란과 함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줄어드는 전공 강의의 수와 지원, 신입생의 부재는 재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심어주고 있다.

과폐지와 통폐합은 대학 신입생이 줄어드는 형국에 맞춰 전국의 대학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재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갖춰지고 향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현재 서경대학교의 변화는 재학생들을 위한 명분과 실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비즈니스 어학부 노어 전공의 한 학우는 "소리 소문 없이 노어 전공이 사라진다는 게 서럽다"면서 "과연 노어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는지, 졸업 때까지 마음 편히 전공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출처 : 서경대학교 홈페이지

"서경인들이여, 세상에 나아가 꿈을 펼쳐라!"

제74회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15일 11시 서경대학교 문예홀에서 '제74회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눈비가 내리는 곳도 날씨에도 학교는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붐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서경대학교는 박사 22명, 석사 122명, 학사 1,141명으로 총 1,285명의 동문을 배출해냈다.

최우수상 이사장상은 사회과학대학 군사학과 최요셉 학생이, 우수상 총장상은 인문과학대학 국제비즈니스어학부 김다미,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적자원학과 이예민,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이지원, 예술대학 영화영상학과 황서연,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주용석, 웅원재우주에안 학생이 수상했다. 이들은 단상에 올라 김범준 총장에게 직접 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학위수여식이 끝난 뒤 12시부터는 각 학부·학과의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교수들은 졸업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따뜻한 축하 인사와 함께 학위증서를 수여했다.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과 선배들로 꽉 찬 강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편 우천과 스나기능으로 인해 예정됐던 '한숲' 총학생회의 SKON 캐릭터 인형 탈 이벤트는 안전상의 문제로 취소됐다. 학위수여식이 끝난 이후 문예관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은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문전성시였다. 포토존은 16시 30분까지 운영됐다. 또한 주차장은 당일 10시부터 14시까지 무료 개방했다.

지난해 '위로' 총학생회의 공약이었던 학사복 디자인 리뉴얼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바뀐 녹색의 학사복은 졸업생들에게 인기였다.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A 학우는 "검은색이었던 이전 학사복보다 훨씬 고풍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경대학교 무대패션연구소에서 학사복에 결들일 수 있는 리본 300개를 제작해 '한숲' 총학생회가 청운관 L층 학사복 대여 장소에서 한정 판매하기도 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올해부터 달라진 수강 신청에 학생들 '의견 분분'

수강 신청 제도 개편 이후 첫 수강 신청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학년별 순차 신청 후 마지막 날에 타 전공 수강 신청을 진행하던 기존과 달리, 오로지 '학기(次)' 로만 3일간의 일정을 구분 지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강 변경' 관련 개편이다. 학교는 교양 및 자유 선택 과목에 한해 "정원이 다 한 후에는 삭제만 가능하며, 수강 취소로 인해 생긴 여석에 대한 수강 신청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로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규칙을 들었다. 학교는 "지정된 시간에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 인기 과목 양도 혹은 매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며 해당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수강 취소 인원이 풀리는 시간이 너무 적어 오히려 불편하다", "강의 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등 사뭇 엇갈린 반응이다. 한편 수강 정정은 개강 후 3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목숨 걸고' 하는 정치?... 반복되는 정치인 물자마 피습

경제

지하철과 버스 무제한, 그러나... '기후동행카드'의 불편한 실정

사회

계속되는 '늘봄학교' 갈등, 맞벌이 부부의 부담 덜어줄 수 있을까?

문화

장원영의 의미 있는 승소, '사이버 렉카'도 처벌 가능하다

연예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 하차... 갑작스런 MC 교체에 뿔난 시청자들

스포츠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태국전 이강인 선발 논란... 황선홍호 올라타나

자세히 보는 이슈

‘목숨 걸고’ 하는 정치?... 반복되는 정치인 묻지마 피습



▲ 출처 : 채널에이, 뉴스

지난 1월 2일 10시 29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 사찰 후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한 남성에게 검은 목이 쥘린 정치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로 위장해 사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직접 개조한 양날형 검은목이 대표의 목에 1.4cm의 치명상을 입혔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1차 이송 후, 응급의료 헬기로 서울 대병원으로 2차 이송되어 치료받았다. 이에 헬기 이용의 특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 측은 특혜 지적에 대해 헬기

이송 적격 여부 등을 의료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의 후송 직후 경찰들이 검은 우산으로 피해 현장을 가려 놓고 깃발국을 생수로 물청소해 제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을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경찰청 수사 본부는 민주당 측의 부실 수사 주장에 반박했다. 범행 입증이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고, 현장이 공공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혈흔을 제거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의자는 1957년생 남성 김진성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2020

년까지 국회의원 계열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소속이었고, 2023년 4월 이재명 대표의 일 정 파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피의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적대심을 드러냈다.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 23일 만에 또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25일 17시 10분경 강남에서 국회의원 소속 배현진 국회의원이 10대 남학생에게 돌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의 원이죠?”라 묻은 뒤, 배 의원이 “맞다”라고 대답하자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피의자는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4세 남학생으로, 미성년자이지만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은 아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응급 입원(정신질환자를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 조치했다. 국민의힘 측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며 분노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선처는 일절 없다고 엄중 처벌을 원했다.

피의자에 관해 동급생들은 “양쪽 정당을 다 욕하고 다녀서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니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둘 다 비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2월 14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배현진 피습 사건에 대해 공범 혹은 배후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 전에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와 영부인 윤영수 피살 사건, 박근혜 피습 사건, 송영길 피습 사건과 같이 비슷한 정치 테러 사건이 꾸준히 발생되어왔다. 이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극한의 정치는 예전부터 계속되어왔다.

지난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공정의 정치보다 증오의 정치, 공격의 정치가 훨씬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며 현 정치 상황을 지적했다.

한오십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치인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 설립 계획 여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경호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피습에 대한 불안이 커질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지하철과 버스 무제한, 그러나... ‘기후동행카드’의 불편한 실정



▲ 출처 : 서울특별시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기획된 ‘기후동행카드’가 지난 1월 출시됐다. 기후동행카드는 30일 동안 지하철과 버스, 선택지에 따라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일반형은 6만원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맞춤형은 약 12% 할인된 5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약 50만 장이 판매되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웃돈까지 얹어 거래되는 등 반응이 매우 뜨겁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후동행카드 무용론에 더해 운송 회사의 적자를 부추킨다는 점과 사용 지역을 서울로 제한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까지 약 18조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적자를 더 부추기는 기후동행카드 실시에 대한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시범 기간이 끝나는 올해 7

월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반응이다.

더불어 서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과 공항철도 역에서는 충전이 불가하다는 점, 광역버스, M버스, 공항 리무진, 그리고 신분당선 등은 사용 불가하다는 점, 서울에서 승차 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 제약 사항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최근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도 지역 확대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는 출퇴근 직장인과 등하교 학생들의 불편함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범 기간을 통해 수도권 지역 확대와 시스템 안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추가로 교통비를 한 달에 5만원대까지 사용하지 않는 시민이라면 기

후동행카드 이외에도 교통비의 최대 30%까지 절감되는 ‘알뜰교통카드’와 5월 출시 예정인 최대 53%까지 환급되는 ‘더 경기 패스’ 등이 있다. 자신에게 맞는 교통 요금과 승차차 위치를 고려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 인터뷰] - 김동훈 (가명/24세)

Q.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현재 저는 자취를 하고 있어서 생활비 부담이 큼니다. 등하교, 아르바이트, 분가 등 거의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 달 교통비가 1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유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티머니 앱을 통한 모바일 카드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실물 카드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원래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또한 요금 충전도 현금을 따로 뽑아, 역에 있는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해야 돼서 불편합니다.

음지훈 수습기자 (shadeumji@naver.com)

장원영의 의미 있는 승소, ‘사이버 렉카’도 처벌 가능하다

‘사이버 렉카’는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렉카’처럼 인터넷 상의 가시거리를 퍼 나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들의 악성 루머 영상 유포와 근거 없는 루머의 유포는 인터넷의 양면성을 더욱 짙게 만드는 인터넷 폐해의 극점이다. 인터넷에 연예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공식적인 정보와 기사보다 이러한 사이버 렉카들의 영상과 글이 상위 노출되는 행태에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 출처 : bnt뉴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하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 씨를 대상으로 한 1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탈덕수용소는 인터넷상에서 특정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허황된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악의적으로 조작한 영상을 유포하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콘텐츠 제작을 일삼았다. 탈덕수용소는 높은 순위와 악질적인 면모 때문에 사이버 렉카 사이에서도 특히 악명이 높았다.

박모 씨는 스스로 계정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행동에도 원고 측의 강경한 입장을 바꿀 수 없자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항변했으며 결과적으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박모 씨는 1심 판결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했다.

유명 연예인이 직접 나서서 당사자를 지목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승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간 많은 사이버 렉카 유튜브들이 인터넷과 익명성 뒤에 숨어 활개를 치다녔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유튜브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기엔 신원 정보 등의 자료를 취하기 복잡하다는 사실도 사이버 렉카 양성에 큰 영향을 줬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승소를 위해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협조를 통해 확실한 증거들을 모았고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사이버 렉카 유튜브 중 가장 파급력이 높았던 탈덕수용소에 대해 고소 진행과 승소 판결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철저한 조사와 자료 제공을 통해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법적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보도 직후 다수의 사이버 렉카 유튜브들이 스스로 자신의 계정을 삭제하며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라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은 탈덕수용소뿐만 아니라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예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이후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판결

에 따라 사이버 렉카들이 만연한 행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짜라시를 생산하는 사이버 렉카들도 문제이지만, 인터넷 사용자들도 인터넷 문화와 콘텐츠들을 건강하게 소비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렉카 유투브들의 급증은 영상 조회수와 댓글 수, 그리고 구독자 수가 상당하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또한 다른 커뮤니티로 공유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2차, 3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콘텐츠 소비하고 공유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포자와 수용자,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건국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또 우리 스스로는 이것으로부터 결백하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yhyu@naver.com)

계속되는 ‘늘봄학교’ 갈등, 맞벌이 부부의 부담 덜어줄 수 있을까?

지난 1월 24일,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 서비스를 의미한다. 2024년 1학기부터 전국에 2,000개 이상의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2학기부터 모든 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통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출처 : 포토뉴스

지원 대상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들어갈 수 있던 기존의 돌봄업무는 교사로부터 분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업무 상당수가 교사에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되면서 이미 일선 교사들에게 업무가 부과됐고, 업무분장엔 늘봄 관련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됐다. 늘봄학교 전담 인력이 관리책임자가 되더라도 결국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물은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지난해 8개 시도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했는데 급하게 추진된 탓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를 못 구해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늘봄학교 전용 공간도 없어 교사들이 업무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도 생겼다. 추진 초기부터 제기된 돌봄 운영시간의 효율성, 돌봄의 질, 인력 수급 문제, 공간 부족, 교사와의 업무 분

담 문제 등 현실적인 과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다분하다. 이처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잡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늘봄학교를 향한 갈등 탓에 학부모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육아 부담을 덜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다. 당장 3월 개학과 함께 진행될 늘봄학교의 시행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아직

참여 학교와 선정과 교사 선발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선 충분한 돌봄 인력과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직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유미 씨는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돌봄 프로그램인 방과후학교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방과후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 방과후학교 수업이 늘봄학교의 일부로 편입된다면 시간제 강사로 일해야 하는데,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반발이 클 것이다. 혹여나 늘봄학교 교사로 들어가더라도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자일 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에 비해 업무량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처우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나연 수습기자 (n4yexn@gmail.com)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총장 축사



서경대학교 총장 김범준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서경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여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축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서경대학교에는 해마다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의 입학식은 그 중에서도 가장 뜻 깊고 기쁜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경대학교를 빛내줄 신입생 여러분에게 교수, 직원, 선배, 동문들이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전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눈빛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학부모님들께도 특별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학부모 여러분의 벅찬 기쁨과 학교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경대학교는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뛰어난 교수진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전문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세계적인 인재로 길러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오늘을 위해 참고 노력한 인고의 시간을 마감하고 이제 보람 있고 낭만 가득한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선 여러분에게 총장으로서 몇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이끌고 담대하게 하며 맘 흘리게 하여 마침내 목표한 바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자신과 주변에 대한 애정과 인내만큼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경험하십시오. 경험하고 기회를 가진 만큼 성장하고 새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 본인의 의지든 아니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지역, 다른 학교 출신들과 어울리며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쪼개면 여행하기, 고전읽기, 품격있는 글쓰기, 공모전·경연대회 참가, 인턴십과 직장 경험, 재학 중 창업, 동아리활동,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도전 및 기회와 함께 좋은 친구, 평생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구촌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세계는 날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도시, 국가를 넘어서 세계로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세계 역사, 문화, 언어를 잘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어 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과목, 비교과 과정에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의 주변, 우리 사회,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균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옳은 판단력을 갖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첨단 문명의 이기들과 친숙해지고 이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요즘은 chatGPT가 두루 화제입니다. 교과목 구성, 교육 콘텐츠 제작, 학생 평가, 맞춤형 교육 등 거의 모든 대학교

육 과정에서 이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명은 미래의 피할 수 없는 중심 요소입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로봇에 익숙해지십시오. 저는 서경대학교 학생들 누구나 시시대의 리더이자 승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대학 생활과 학업에 임해 주십시오. 서경대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여러 문제를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 선배들과 함께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협업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지적인 성숙함과 공감 능력을 체득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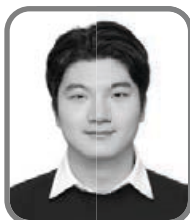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서경대학교는 여러분의 큰 기대와 희망이 결코 헛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알차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선진 교육환경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새내기다운 도전정신과 창조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학 생활에 임하여 주시면 여러분 모두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의 아름다운 대학생활이 힘차게 시작되기를 바라며, 서경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종휴



안녕하십니까, 그대들의 풀잎, 하나의 숲으로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컴퓨터공학과 21학번 김종휴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서경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나긴 대입 기간을 거쳐 입학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설렘과 기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이기에 분명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과 두려움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를 극복하고 새로이 배우며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설렘과 기대를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후회 없이'입니다. 지금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4학년이 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장학금'에 대해 무지했던 것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 매우 많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장학금을 교내·외로 찾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학 생활의 꽃인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 그리고 여러 대외활동들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대학생의 특권이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모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들의 풀잎, 하나의 숲으로'라는 저희 '한숲' 총학생회의 슬로건처럼 저는 서경대학교 모든 학우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 되어 나아가고 싶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모두의 학교생활을 응원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 '한숲'을 찾아주십시오.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행복하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서재완



안녕하십니까, '그대들의 풀잎, 하나의 숲으로'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19학번 서재완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24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축하드립니다. 수험생활을 벗어나, 대학생의 신분으로 여러분의 빛나는 20대를 맞이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두려움, 걱정 그리고 행복과 설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감정이기에 충분히 신입생 여러분의 마음이 공감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걱정은 여러분의 발전과 발판이 될 것이고, 행복과 설렘은 발전의 양분이 될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곳일지라도, 자신이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저도 서경대학교의 한 학우로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한숲 총학생회의 임원으로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주시면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겠습니다. 서경대학교에서 아름다운 대학 생활과 좋은 경험을 쌓아 사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름다운 20대의 시작을 항상 앞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4대 새들 인문대 정학생회장 최창조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대 새들 인문대 정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0학번 최창조입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의 서경대학교 입학 축하드립니다. 길었던 초중고 학교생활을 견뎌내고 입시의 문턱을 넘어 서경대학교에 도착하신 신입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오는 것을 체감하듯이 여러분들의 앞에 대학 생활이라는 인생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번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에 처음 들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던 타지 생활과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해보지 전부터 떨리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출발선에 당당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선다면 많은 것들이 뜻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신입생 여러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것은 주저 없이 도전해 보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지난 학교 생활들을 돌아보면 주저하다가 결국 포기했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많은 후회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많은 활동들을 여유 있게, 또 가장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신입생 시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어쩌면 가장 기억에 남고 소중한 신입생으로서의 1년을 응원합니다. 소중한 한 해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학교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이자 선배,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대 우연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고우리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만 들어가는 연결고리, 제26대 우연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군사학과 21학번 고우리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입시 기간의 고된 수험생활을 견뎌내고, 마침내 이 자리에 선 여러분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겨우내 얼었던 자연이 태동하는 이른 봄, 큰 희망과 기쁨을 떨리는 설렘을 안고 자랑스러운 서경인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희망하는 대학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그려나갈 시간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앞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역시 꿈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니, 좌절하지 말고 단단하게 앞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24학번 새내기 학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새 학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월이면 재학생, 신입생 할 것 없이 들뜬 얼굴의 학우들로 학교가 북적거릴 것입니다. 새내기 학우 여러분을 맞이할 생각이 저 역시 설렘입니다.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본교에서, 우리 모두의 꿈과 낭만을 실현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이 꿈꾸고, 희망하는 학교생활의 실현을 위해 저희 우연 사회과학대 학생회 역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교 입학 축하드리며, 새내기로서 또 다른 세상에 첫걸음을 내딛는 서경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33대 불패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이현성



2024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대 '불패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토목건축공학과 20학번 이현성입니다. 우선, 길고 고된 입시경쟁 끝에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회장으로서 축사를 쓸 수 있게 돼 큰 영광입니다. 24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보니 제가 처음 대학교에 입학하던 당시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설렘과 긴장감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을 마주하고, 함께 보낼 대학 생활을 생각하니 기쁘고 두근거립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지식의 배움, 새로운 기회 발견을 통해 지금껏 경험해 오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겪게 될 대학 생활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에 가끔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학생회 그리고 주변 학우들이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출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처럼 고된 수험생활을 마치고 입학한 서경대학교에서 꿈꾸던 대학 생활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는 제33대 불패무적 이공대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26대 통합 울림 예술대 정학생회장 하예빈



2024학년도 서경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술에 닿아, 더 크게 울림,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제26대 통합 울림 예술대 정학생회장을 맡게 된 디자인학부 20학번 하예빈입니다. 먼저 길고 어려웠을 수험 기간을 거쳐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면 늘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신입생이 되던 해, 시작이라는 단어 앞에 설레는 감정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 이리저리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만 품을 수 없이 다면 좋겠지만,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떨지 않고 용기 내 무엇이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한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과 순간 또한 시간이 지나면 추억으로 대학 생활 한편에 자리하게 되리라 감히 예상해 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추억의 시작이 될 모든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행사가 완벽하게 회복된 지금 신입생 여러분을 더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 볼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대학 생활을 준비하고 계실 신입생분들의 기대와 설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울림예술대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4년간의 대학 생활, 서경대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그려나갈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교 입학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40대 서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송유진



안녕하십니까, 제40대 서로 총동아리연합회 정학생회장 아동학과 21학번 송유진입니다. 우선 서경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 생활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입학했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 새내기 생활을 비대면으로 보내게 되어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들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라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신입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자신을 알아주는 대학 친구를 한 명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동갑내기 아니어도 좋습니다. 선, 후배 상관없이 자신과 마음이 맞는 친구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생긴다면 본인도 소중히 생각하고 잘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에 오기 전 '대학 친구들은 대학교 친구들이 뿐이다. 진정한 친구는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 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왜 생겼는지 의아할 정도로 대학교에서 너무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견뎌라도 중심에서 저를 믿어주고 단단하게 받쳐주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위한 친구가 있다면 어떤 일에 도전해도 두렵지 않을 것이며, 비록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연한 향상을 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 서로 총동아리연합회가 힘껏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립니다.

2024 서경대학교 입학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대학교 입학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학 생활은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모험과 경험을 만들어 내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대학은 지식을 얻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종종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입학할 때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열정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이며,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와 학업에 전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적당한 휴식과 여가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자신을 채워주는

취미를 찾고,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가능성을 믿으며, 꿈을 향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방미영 (서경대신문 주간)



편집장 송민경



안녕하십니까, 서경대 신문사 제68대 편집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1학번 송민경입니다. 모든 24학번 신입생 여러분,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정 자체만으로도 고된 입시를 끝마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 중 둘째가라면 서러울 학생으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날 세우기보다는 동글게 지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많이 보고, 듣고, 읽고, 느끼면서 다양한 일을 시도하시기를 권합니다. 북수전공, 부전공, 교내 동아리, 연합동아리, 각종 대내외활동 및 공모전과 봉사, 그리고 신문사까지. 저는 여력이 되는 한 무작정 해보기에 다 나와 버리고 싶을 때도 분명 있었지만, 더하면 더했지 단 한 번도 '덜할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으니 여러분도 다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걸 홀로 해내야 한다는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을 몰라 시작도 두려우시겠지만, 그러나 설사 시작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너무 패닉치 마십시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어떻게 됩니까? 풀고 다시 차근 차근 꿰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종 누가 말해줬더라면 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여태 서경대 신문사 기자로서 입학을 축하한다는 핑계로 사실을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적었는데, 부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나날에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국 심신이 건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신문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편집장 김나연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 신문사 제68대 부편집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일어전공 23학번 김나연입니다. 24학번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년 전, 저도 서경대학교 신입생으로서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을 기다렸던 게 기억납니다. 신문사에 입사하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했던 제가 이제는 서경대 신문사의 부편집장으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항상 챙기는 제 신문사 노트는 어느새 귀퉁이가 닳아버렸네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환한 웃음이 눈에 선합니다. 오랜 시간 수험생활을 견디며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대학생이 된 여러분들 앞에는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온전히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어른'이 되었으므로 혼자서 해내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도전하고 경험해 보세요. 그 모든 과정들은 인생의 거름이 되어 여러분을 더욱 강인하고 성숙하게 만들 테니까요.

신문은 청년에게 소중한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나라의 정세와 흐름을 알고 본인의 신념을 담아 투표하는 민주주의 시민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24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길 바라며, 서경대신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자 김나연



안녕하세요, 서경대 신문사 제68기 정기자 아동학과 김나연입니다. 서경대학교 24학번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신입생으로 본교에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이 여덟 번 바뀌어 어느새 또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와 많은 입시 제도 변경으로 인해 혼란도 많고 답답했을 수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할 일을 하며 버티고, 결실을 본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 "대학 가면 매일 노니까 지금은 공부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제 모교 선생님들께서 늘 말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군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나 도전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은 저에게 대외활동과 공모전으로 인해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포기만은 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했다'라는 것 또한 어쨌든 내가 무언가에 열심히 도전했다는 증거니까요.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며 새로운 시도와 배움의 출발점일 뿐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순간을 기회로 여긴다면 그런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새로운 도전의 첫 시작에 발을 내디딘 지금, 모두에게 서경대학교에서의 시간이 뜻깊고 기억에 남을 대학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자 유지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 신문사 제68기 정기자 아동학과 20학번 유지우입니다. 긴 수험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발견을 내딛는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3을 마치고 갓 스무 살이 되던 해, 지금의 여러분과 같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부풀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학' 하면 생각나는 과장 입기, 신입생 환영회, MT, 동아리 등 여태껏 해본 적 없던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생각에 두근거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뒤로 늦춰지긴 했지만, 대학교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새롭게 배운 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본래 자신감이 부족해 '시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에 들어와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교내의 활동들을 통해 사람들과 부딪히고 소통하며 '일단 무엇이든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과거의 저처럼 설렘과 더불어 마음 한 편에 두려움이 자리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는 때 순간이 모여 자연스레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 대학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인연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갔으면 합니다.

대학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 나갈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습기자 김경민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어깨를 지그시 누릅니다. 새해, 새 학기입니다. 서경대학교의 구성원이 되신 신·편입생 학우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2학번, 서경대 신문사 제68기 수습기자 김경민입니다.

축사의 본뜻에 맞게 우리 서경대에 입학하신 것을 선뜻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학우분들께는 걱정과 고민의 무게가 입학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을 알기에 간단한 축사조차 망설여집니다. 저 또한 마뜩잖게 시작한 학교생활이었습니다. 학업과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고 주변 평판에도 주눅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얽매어 학우들과의 관계나 교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제 앞에 놓인 기회들을 그저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분, 저의 첫 학기는 대학의 설렘이나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냈던 시간 덕에 저의 2학기는 더욱 새롭고 귀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했고, 여러 수업과 신문사에서 저마다 삶을 멋지게 꾸려나가는 학우들을 만났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 같았던 저를 되돌아보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랬듯 여러분 또한 대학 생활을 통해 소중하고 귀한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무언가가 부족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겠지만, 그 또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고마운 효소와 촉매일 것입니다.

앞서 적은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장 귀중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러니 부디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 끝으로, 서경대신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실한 신문 되겠습니다.

수습기자 음지훈



안녕하십니까, 서경대 신문사 제68기 수습기자 경영학부 21학번 음지훈입니다. 먼저 24학번 신입생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교 입학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과 수험생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년 전, 제가 입학했을 때 설렘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어느덧 4학년이 되었습니다. 졸업까지 두 학기가 남은 상황에서 대학 생활 중 마지막 후배님들을 보내고 생각하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대학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활동도 좋지만 이외에도 대외활동, 공모전, 연합동아리 등 여러 교외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저도 은행 서포터즈와 카드사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인연과 경험을 얻었습니다. 신입생분들도 다양한 교내의 활동들을 통해 대학 생활을 즐겨 보세요.

재밌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으로, 미래에 과거 대학 생활을 회상할 때 때 마음속 즐거움 추억으로 남아 무척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신입생분들도 향후 대학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는 순간인 동시에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과 학우들과 함께 신문 기사를 작성하며, 친해질 기회가 있는 서경대학교 신문사도 학기 초에 모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입생분들의 서경대학교에서의 시작을 응원하며 이만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자 이나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 신문사 제68기 수습기자 물리시스템공학과 23학번 이나연입니다. 길고 긴 입시의 터널을 지나 꿈꿔오던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입생으로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년이 돼 축사를 쓰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렘, 두려움, 기쁨 등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저 또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막상 학교생활을 시작하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대학 시스템은 세상을 보는 견문을 넓혀줬으며, 좋은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새내기 시절을 정말 알차게 보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어떤 학교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저는 많은 경험과 도전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에 도전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2학기에 신문사 입사라는 큰 도전을 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푸른 새싹을 틔우기 시작한 3월, 새 학기의 설렘이 저 또한 가슴 깊숙이 다가옵니다. 겨울 내내 움츠러들어 있던 캠퍼스가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활기를 띠며 만개할 모습이 기대됩니다. 서경대학교에서 멋진 꿈을 키우고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습기자 이재근



안녕하십니까, 서경대 신문사 제68기 수습기자 문화콘텐츠학과 19학번 이재근입니다. 겨우내 추위가 물러가고 새 생명의 기운이 돌아오는 봄이 왔습니다. 또, 겨울 같은 수험생활 끝에 봄처럼 활기찬 결실을 본 신입생 여러분이 왔습니다. 24학년도 입학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2024년은 신입생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뜻깊은 한 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4학년인 저는 정들었던 학교에서 마지막 1년을 보낸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살 봄, 제 삶에서 가장 설레고 산뜻한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봄은 매년 오지만, 20살만큼의 설렘과 산뜻함을 느끼기 어려워졌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봄이 더 아삭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의 봄'이라는 설렘을 느껴왔던 만큼 졸업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있는 지금, 저는 두렵기보다는 설렘입니다. 여러분도 새 시작이 설렘 수 있는 뜻깊은 1학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에는 다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편할 테지요. 하지만, 창문 밖에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즐거움과 설렘이 가득한데 있어만 있기에는 우리의 젊음과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움직여서 더 많은 설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봄의 생명력을 한가득 받아서 설렘과 활기 가득한 새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24학년도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수습기자 전준혁



안녕하십니까, 서경대 신문사 제68기 수습기자 전준혁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서경대학교는 함수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붙이는 숫자와 부호에 따라 서경대학교가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바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부디 서경대학교를 통해 최상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서경대학교는 그 어떤 곳보다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을 자칭합니다. 상처받고 서툰던 제가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조금씩 변화해 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또 좋은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귀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충분한 행복을 알고,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어떤 형식으로든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욱 수월할 겁니다. 행복을 찾는 자에게 서경대학교는 한없이 너그러운 곳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맘껏 마음껏 넓은 시야와 단단한 단점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실패를 먼저 상정하지 말고 포기해도 좋으니 어느 것이든 시도해 보십시오. 실패라고 생각되어도 상념에 잠기지 마십시오. 실패 속에서도 철나의 즐거움과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다면 실패라고 단정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경대학교에서 멋진 실패들을 마음껏 누렸으면 합니다.

서경대학교를 디딤돌 삼아 더 넓은 곳으로 도약하시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는 E렇게!

MBTI-E 유형은 '외향성'을 뜻하며 활동적이고 외부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는 경향을 말한다. 이 기획에서는 서경대학교 내에서 다양한 외부 활동을 즐기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들을 소개한다.

푸른 창으로 둘러싸인, 원기둥 형태의 건물이 있다. 바로 한림관이다. 이 한림관과 신입생 문화제가 진행됐던 수인관 사이로, 몇 계단을 올라가면 여러 개의 풋살장이 눈에 띈다. 성복구 최초의 정규 규격 풋살장인 '서경대 풋살파크'다. 이곳은 예약을 통해 만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기에 다양한 시간대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2시간 대여 기준으로 평일은 11만 원~12만 원 대, 주말과 공휴일은 13만 원~14만 원 대다. 대여 시간 대비 높은 가성비를 자랑한다.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공을 칠 수 있는 이곳 바로 옆에는 장비와 공을 대여할 수 있는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어, 공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매년 열리는 교내 체전의 풋살 경기도 이곳에서 치러지는 만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는 곳이다.

헬스, 퍼스널 트레이닝(PT), 스쿼시, 필라테스, GX 프로그램, 스피닝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경 스포렉스'의 존재도 활동적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하다. 유담관 3층에 자리하고 있는 서경 스포렉스는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 기구들의 획일화와 노후화가 진행돼 불편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가벼운 운동을 겸하기엔 충분하다. 상술한 시설 및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급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운동복, 수건, 신발착탈을 제공한다는 이점들도 서경인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한다. 휴여 등록이 망설여진다면, 1일 무료 체험 신청을 권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고 운동복과 수건이 제공된다. 평일에는 06시~23시 운영하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09시~18시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관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MBTI로 알아보는 서경대에서 살아남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부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MBTI를 묻는 것보다 더 좋은 질문이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의 문을 열어 간다. 어쩌면 우리에게 MBTI는 생존 열쇠일지도 모른다.

새 학기와 '24학번'의 등장을 앞두고 진행된 신문사 송년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경대에서 살아남았나?"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ENTP, INTP, ENFJ, ISTP로 어느 하나 겹치지 않는 MBTI를 가진 취재부 기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앞선 질문이 곧 본 기획의 시작이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기사에 담았다. 이른바 '교내 생존법'을 현대인의 신분증과도 같은 'MBTI'를 통해 풀어냈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과 더불어 휴식, 효율, 비용과 같은 부분까지도 구성구석 신경 썼다.

본 기획이 서경대학교 학우들의 교내 생활에 있어 작고도 귀중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 새 봄날을 맞아 파릇파릇한 '풀잎' 같은 학우들이여, 무엇보다 즐기자. 그리고 살아남자.

!고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MBTI-I 유형은 '내향성'을 의미한다. 소수의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에너지가 충전되는 유형이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교하고, 대형 강의실에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수업을 듣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진다. 속된 표현으로, '기가 빨린' 상태가 된다. 동기들과 함께하는 시끌벅적한 학교생활도 좋지 만, 이렇게 종종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혹은 공간 시간을 보내야 할 때 방문하기 좋은 장소 두 곳을 소개한다.

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유담관' 건물의 7, 8층 학술정보관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빨간 의자'라고 불리는 소파가 있다. 이 의자는 학술정보관 내부의 안내데스크를 기준으로 오른쪽 벽면과 반대편 멀티미디어 존에 줄지어 있는 1인용 리클라이너를 말한다. 폭신한 재질과 더불어 측면의 스위치로 등받이와 발 받침대 조절이 가능해 공부에 지치거나 쪽잠을 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인기다. 방학 기간이나 늦은 오후에는 한산하지만, 그 외에는 적은 의사 수로 인해 만석을 이루는 경우가 다반사다. 8층 좌석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7층 좌석 이용을 원한다면 반드시 '서경 포탈'에서 좌석 발급을 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이용 시간을 꼭 준수하도록 하자. 더불어 이곳은 도서관 내부이니 도서관 이용 예절을 잘 지키자.

다음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싶다면, '북한산 산책로'를 추천한다. 교내 1164 버스 정류장에서 북악관과 유담관 사이 길로 걸어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북한산 산책로가 나온다. 북악관 건물 뒤편으로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길이라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기에 좋다. 또한 높은 지대라는 학교의 위치 특성상, 주변 전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봄, 여름엔 푸른 풍경을, 가을엔 붉은 단풍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학교 생활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북한산 산책로를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

J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필수

당신의 학교생활은 교내·외 혜택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생활하는 MBTI-J 유형처럼, 꼼꼼히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을, 오히려 '이득 보는' 교내·외 장학제도와 교내 카페 이용 팁을 소개한다.

대학생이라면 필히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해야 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2차 신청 시 구제되므로, 1차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교내 장학금 중 '성적우수장학'은 학생들의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직전 학기 성적과 토의 성적을 일정 비율 반영해 장학생을 선출한다. 직전 학기의 성적만으로도 자동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토의 성적을 제출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이때 토의 성적표는 기존에 제출했더라도 매 학기 재제출해야 한다.

면학 장학금은 학생이 직접 공시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므로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장학금이다. 이 중 '면학 B형 장학'은 소득 구간 9구간 이하의 학생 중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이 2.0 이상인 학생이 수혜 대상이다. 위 장학금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산출된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앞서 소개한 교내 장학금은 모두 해당 학기의 등록금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지급된다. 본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더욱 다양한 교내·외 장학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주에 한 번씩은 습관처럼 공지를 확인하여 유익한 정보들과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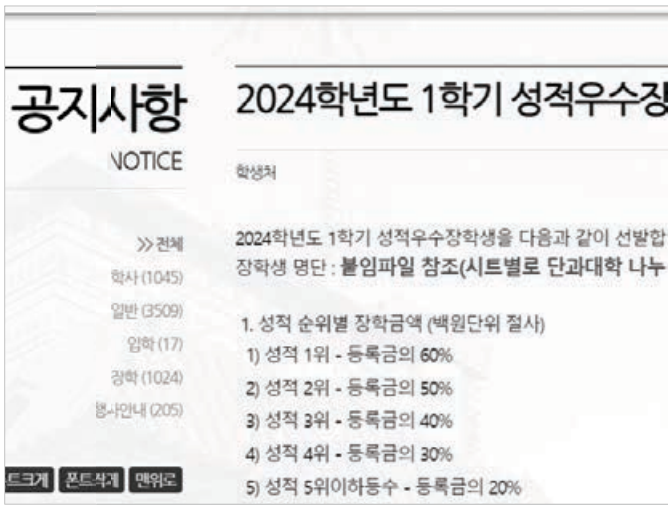
이에 더해 교내 카페를 이용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스콘스퀘어로 향하는 언덕을 오르다 보면 보이는 대입관 '카페 SP', 혹은 유담관의 '카페 로렐'을 이용하는 경우, '앱 '야미'를 사용해 미리 주문할 수 있다. 앱 설치 시 즉시 사용 가능한 1000포인트가 제공되며 포인트 및 쿠폰 적립이 가능하다. 음료 제조 상황을 알 수 있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줄어든다. 다만 시즌 메뉴는 앱에서 주문이 불가할 수 있다.

계획을 P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흔히 '인식형'이라고 불리는 MBTI-P 유형은 대개 계획을 따르기보다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경우 계획의 부재로 인한 난감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럴 때 P에게 필요한 서경대학교 정보를 준비했다.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 우산 없이 나온 탓에 비나 눈을 그대로 맞아 본 경험이 있는가? 그러나 비나 눈이 오는 날, 우산 없이 학교에 도착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학교는 강의가 진행되는 주요 건물들이 모두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115번 버스 정류장 앞 입구로 들어가면,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하 통로가 나온다. 이 통로는 비와 눈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부터 청운관과 헤인관을 잇는 '폭풍의 언덕'과 우리 학교의 상징인 '스콘 스퀘어'에 비해 바람 세기 또한 약하다. 비, 눈, 바람을 피하고 싶다면 서경대학교 교만의 비밀 통로를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외에도 교내에서 우산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겠다.

청운관 1층 이마트24 편의점에서 55~70cm 길이의 우산을 7,000~13,000원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등교 전 충전을 깜빡해,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됐던 경험이 있는가? 교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자. 우리 학교에서 '보조 배터리'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은 북악관 1층, 유담관 1층, 청운관 1층, 그리고 청운관 1층이 있다. '파박'이라는 앱을 통해 1시간당 1,000원에 보조 배터리를 대여할 수 있으며,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신용카드를 지원한다. 정확한 보조 배터리 대여 장소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파박 앱 지도를 확인하길 바란다. 또한 청운관 1층 이마트24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는 핸드폰 충전을 맡기거나 보조 배터리를 빌릴 수 있다. 이곳에서는 최소 6시간부터 최대 4일까지 2,000~12,000원에 대여 가능하다.



의무휴업일 전환의 허와 실, 대형마트를 둘러싼 희비교차

“대형마트 언제 쉬는데” 지역마다 다른 ‘의무휴업일’ 직접 확인해야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장은 0시~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SSM)은 월 2회를 맞이해야 했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했지만 급변하는 유통시장과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세에 의무휴업일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기보다 오히려 새벽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을 애용했다. 의무휴

업 제도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의무휴업일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논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5차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 대부분은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당분간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지자체장들은 의무휴업 제도가 폐지된 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전환한 곳은 서초구와 동대문구 단 두 곳뿐이다. 서울시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지난 1월 2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영업을 재개했다.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김스클럽 강남점에 대해 GS더프레시,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하나마트 반포점 등 SSM 34곳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동대문구는 지난 1월 23일, 대·중소유통 간 상생협력 추진과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일 해제를 고시했다. 관내 대

형마트인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청량리점을 포함해 SSM △이마트에브리데이(이문점, 답십리점) △롯데슈퍼(장안점, 전농점, 마켓999이문점) △노브랜드(경동시장점, 동대문중앙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회기점 △GS THE FRESH(동대문중앙점, 장안한내점) 등 12곳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2월 10일,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대구발 의무휴업일 전환이 전국으로 확산돼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 10일부터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했다. 부산을 비롯한 주요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의무휴업시간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0시~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의무휴업 규제는 의무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할 거지면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오늘이 빨간날이어도 문제없어요, 대형마트 소비자의 장보기

아무 생각 없이 일요일에 장을 보러 대형마트로 향했다가 굳게 닫힌 문에 되돌아오거나, 마트가 아닌 시장으로 간 적이 다들 있을 것이다.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인 걸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필자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요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려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취재부는 2월 25일 일요일,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서초구 소재의 양재 이마트로 향했다.

양재 이마트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온 A 씨는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옮겨지며,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올 수 있어 편하다”며 “타 대형마트에 먼저 들렀는데 일요일 휴무라 문이 닫혀 정상영업 하는 양재 이마트에 왔다”고 말했다.

타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이곳에 왔다는 B 씨. 자식들까지 함께 대가족이 장을 보러 온 B 씨는 “직장인들은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올 수 있어 일요일에 쉬지 않는 게 좋다”며 “시장은 싱싱해도 다양한 물건은 없다. 대형마트는 한군데서 다양

한 것을 살 수 있고 주차 문제도 좋다”고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한다며 현안유지를 바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평일에는 차를 못 갖고 오는데 주말에는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같이 장을 볼 수도 있고 편하다”는 C 씨 또한 타 대형마트 이용을 위해 집을 나섰다. A 씨의 휴업으로 인해 발길을 이곳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작아서 시장은 잘 안 간다”며 대형마트를 선호하기에 “이젠 휴업일을 찾아보지 않고 주말에 장을 보러 나올 수 있어서 좋다”고 평일 휴업을 반긴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불상사가 생길까 항상 휴일을 미리 조사하고 방문한다는 D 씨는 “주말에는 차를 가지고 오기 편해서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마트 일하는 분들은 힘드실 것 같다”며 노동자에 대한 염려를 비추기도 했다.

대형마트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옮겨진 것을 반겼다. 보통 주차가 편리하고 주변 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평소 장을 볼 때 대형마트를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아직 주변의 다른 대형마트들이 여전히 일요일에 휴업하는 경우가 있기에 휴일인 마트에 가서 허탕을 쳐도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마트를 둘러서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거주 주민 E 씨는 “평일에는 퇴근 후 보통 공장 집으로 가기에 장 보러 대형마트에 들리지 않는다”며 “주말이 시간적 여유도 더 있기 때문에 평일 휴업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대형마트에 가는 것은 단순히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외출하고 밥도 먹고 즐기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에도 평일 휴일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 시장에 대적할 무기 만들어야 할 때



“이마트 양재점은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 합니다” 이마트 양재점에 도착하자, 건물 앞부터 매장 곳곳에 해당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취재부는 서울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을 최초로 도입한 이마트 양재점과 인근 시장 인터뷰를 통해 의무휴업일 변경이 각자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취재부가 방문한 2월 넷째 주 주말, 이마트 양재점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카페 시식 코너에서 근무하는 판촉 직원 A 씨는 “주말에만 일하기 때문에 근무일이 바뀌지 않아, 이전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라며 변경 전후를 잘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마트의 협력사와 본사 직원들 인터뷰 결과, 취재에 응한 대부분이 의무휴업일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솔직한 의사를 나타내기 꺼리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더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것은 실례가 될 것 같아 인터뷰를 간단히 마쳤다.

과연 전통시장 상인의 입장은 어떻게. 취재부는 본래 이마트 양재점 근처의 말죽거리 양재 시장을 방문했으나, 대부분 가게를 열지 않아 의무휴업일 변경이 도입된 또 다른 지역인 동대문구 청량리의 청과물 시장을 방문해 보았다. 전통시장 답게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가득했고, 열기가 활발한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청과물 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 B 씨는 “평일에 손님이 매우 많다.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소식을 들긴 했지만, 매출에 변화는 없다. 재래시장과 마트는 청과물의 질이 다르다. 싸고 싱싱하고, 도매상이라 모여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사라지고 해도 이곳으로 모인다”라며 저렴하고 흥정이 가능한 시장만의 장점 덕분에 손님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떡갈비를 판매하는 상인 C 씨는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꾸준히 손님이 오기 때문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의무휴업일 변경 때문에 전통시장 상권이 악화 될 것이라 예상한

바와 달리, 시장은 별다른 타격이 없는 듯했다. 지역과 상관없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형마트의 휴업일이 평일에서 주말로 바뀌었다고 전통시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의 확대로 축소된 오프라인 시장으로의 소비자 유입을 활성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89조 5천억 원으로, 이는 1년 전보다 9%나 성장한 수치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전체 주요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며 사상 처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YTN]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영향으로, 고객들의 소비패턴 또한 편리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됐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대결 구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프라인 시장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야 할 때다.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을 돌려주세요”, 빼앗긴 마트 산업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권

현대인에게 있어 휴무일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근 의무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된 직종이 있다. 바로 마트 산업 노동자들이다. 이에 취재부는 현장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마트 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서울시 중 서초구가 규제 이후 최초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의 문을 열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기초지자체 재량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이 있다. 고양, 과천, 구리, 김포, 남양주, 안성, 안양, 양주, 여주, 오산, 의왕, 파주, 포천, 하남 등 14곳이다. 2015년부터 이미 평일 의무휴업일을 실시하고 있는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 방문했다.

기존부터 평일 의무휴업일을 실시해 온 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해당 마트에서 근무 중인 직원 A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봤다. A 씨는 “평일 업무 강도는 주말 대비 손님이 적어 여유롭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휴업일은 수요일보다 일요일을 선호



한다”고 답했다. “일요일에 출근하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한 노동자 대부분은 일요일 휴무를 더 선호했다.

이번 규제 완화 발표 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이마트 양재점에도 방문했다. 냉장식품을 정리하는 협력사 직원 B 씨에게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소감을 묻자, “솔직한 심정은 말씀 못 드릴 것 같다. 회사와의 이해관계도 있고, 저도 여기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 본사 직원 C 씨는 “인터뷰는 안 될 것 같다.”고 처음엔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직원들은 암묵적으로 반대한다. 가족과 편하게 주말을 보낼 기회가 사라지는데, 누가 출근하고 싶겠냐”라며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7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서초구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 서초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은 이해관계자인 자신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주말 휴식권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해 규탄했다. 더불어 의무휴업일 평일

“떨이예요, 떨이!” 해질녘 시장을 가득 메우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가 완화된 이후 취재를 위해 방문한 시장은, 취재 전 식막할 것이라던 기자들의 예상과 달리 대형마트보다 훨씬 활기찼다. 더군다나 상인들은 의무휴업일에 관해 신경 쓰지 않

는 듯한 경향을 보였다.

취재부가 방문한 대형마트에서는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주말에 장을 보며 환히 웃는 소비자들의 모습과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 미룬 채 묵묵히 일해야 했던 마트 노동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의무휴업일

완화를 반겼지만, 노동자들은 기자들의 ‘의무휴업일’이라는 언급에서조차 난처한 입장을 표했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소비자와 반대로 노동자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주말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 의견은 배제한 채 의무휴업일 전환이 이뤄지면서 노동자들은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을 규탄했다.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전환 추진이 잇따르며 일반적으로 휴일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현행 의무휴업일 유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 등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유통산

업의 격변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와 함께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반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게 과연 당연한 것인지 고민해 볼 시점이다.

주간칼럼



지역대학과 디지털전통시장

주간 방미영 교수

겨우내 움츠러들던 나뭇가지 끝에서 솟털처럼 부드러운 몽우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 언제라도 기지개를 켜고 환호성을 부를 참이다. 이맘때가 되면 만물은 겨우내 추위에 잘 견뎠다면서 서로 앞다퉈 살아있다는 신호탄을 던진다. 얼마 전 연구차 다녀온 순천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서도 겨울의 한파를 견뎌낸 나무들도 곧 있을 봄의 향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담당 공무원들과 정원사들은 봄의 향연을 위해 설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에게 설렘을 준 꽃들의 향연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관심 그리고 애정 어린 손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서 자신만

의 꽃을 피워야 할지 망설이는 학생들을 많이 본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필자는 캠퍼스 밖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게 하고, 무엇이든지 경험의 장을 열게 한다.

지난해는 디지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릉시장 상인회와 함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였다. 정릉시장은 우리 학교와 가장 근거리로 있는 전통시장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살거리가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모임이나 먹거리를 멀리 성신여대 근처를 찾는데, 학생들에게 정릉시장의 먹거리를 제대로 홍보하자는 취지로 맨스 헬린지와 라이브커머스를 기획, 운영하였다.

처음 학생들은 맨스 헬린지의 대상이 된 [도이치박소시지]를 직접 맛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학교 인근 전통시장에 맛집이 있다

는 것이 너무나 생소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정릉시장에는 이문수 신부님이 운영하는 [청년문간]의 김치찌개가 유명한데 실제 와서 먹어본 서경대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지난 학기에는 40명 가까운 전공 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문간]을 찾아 김치찌개를 직접 먹게 했다. 그 반응은 뜨거웠다. 정릉시장을 처음 와본 학생도 있었고, 그전에 와본 학생도 있었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의 상권에 대해 다시 한번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늘 그렇듯이 경험해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

광장시장에 학생들을 데리고 방문했던 것도 같은 연유에서다. 서울의 관광코스인 광장시장을 아직 못 가본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광장시장 탐방했다. 유명한 파배기와 마

약감밥 그리고 빈대떡을 먹으면서 광장시장이 유명 관광코스가 된 것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현장을 둘러보고 그 연유를 찾게 하고 개선점과 보완점 등을 발견하는 것!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해가는 중요한 코드이다.

필자는 네이버에서 선물처럼 받은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 네이버 소포라이브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 소포라이브채널은 수수료가 없다. 청년과 소상공인과의 연계 고리를 갖고 지역과 대학을 이어주는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 소포라이브채널을 운영한 지 어느덧 2년째로 접어든다. 그동안 지역 축제와 엑스포 등 굵직한 현장에 청년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로컬기업을 홍보하였다. 참여 학생들도 로컬기업이 살아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였다.

최근 산업의 트렌드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은 대학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산업의 빠른 변화의 파고를 넘고자 한다. 대학도 인력양성을 위해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모색한 것은 학생들과 함께 지역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번 신학기에도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 12기 모집에 많은 학생이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순천국가정원의 꽃들의 향연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정원사들과 그곳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많은 사람의 손길에 있는 것처럼 서경대학생들의 추운 겨울을 지나 봄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보듬고, 다듬고, 정성을 기울여갈 것이다.

| 기자의 눈 |

무한한 우주 속에서 행운을 기다려요

지난 1월 홍콩 여행을 다녀왔다. 한국은 양상한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는 한겨울이었지만 홍콩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세계적 내내 산뜻한 날씨가 유지된다. 햇빛은 온몸으로 쬐는 알록달록한 꽃들과 높이 솟아올랐다가 푸르게 부서지는 물방울들이 튀는 분수대를 보니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졌다. 빠른 걸음으로 길을 재촉하기보단 골목길 구석구석을 여유 있게 들여다보게 됐다.

상점이 빼곡하게 들어찬 길을 걷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다. 상점들의 한쪽 외벽에 한자가 쓰인 나무패와 향로가 놓여 있었다. 방치되어 먼지가 쌓인 것이 아니고, 매일 향이 피어올랐다. 벽에 향로를 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어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 공간을 염두에 두고 시공한 듯했다. 장사의 신께 '매출이 잘 나오게 해 달라'고 매일 아침 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호기심이 생겨 검색해 보니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은 매일 아침 조상께 향을 피우며 기도한다고 한다. 이를 보고 삼신상을 올리는 나의 어머니가 생각났다.

우리 집은 생일날 아침에 삼신(三神)할미께 삼신상을 올린다. 삼신할미는 한국 신화의 여신으로, 아이가 태어나도록 점지해 주는 탄생신이다. 삼신상은 미역국과 밥, 물을 각 세 그릇씩 차린다. 아이를 점지해 준 삼신에 대한 감사와 집안의 가호를 바라며, 유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함이다. 아이가 8살이 되는 해까지 하는 게 전통적이지만 우리 집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생일마다 삼신상을 올리는 게 고착됐다. 꼭 원칙대로 하지 않더라도, 삼신상은 그동안 무탈하게 아이를 키워낸 것에 대한 부모님의 감사와 앞으로 건 강하게 살자는 우리 가족의 다짐이

아닐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삼신은 많이 알려진 신이었지만, 현재는 삼신상을 올리는 집이 많이 없다. 지극히도 삼신상을 올린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내 어머니는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시는 타입이라, 저절로 일상의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들어온 몇 가지 미신들을 소개해 보자면 안에서 우산을 펼치면 안 된다. 손 없는 날(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날)에 이사해야 한다. 밖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소금을 뿌려야 한다. 잘 때는 동쪽 혹은 남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고 잔다. 문자방을 밟으면 안 된다. 밤에는 손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 고사를 지내고 가져온 팔떡은 허공에 "고수레~"를 외치며 던진다.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을 했을 경우 즉시 '취소'를 세 번 말한다.

새 차를 사면 타이어에 막걸리를 뿌린다.

미신들은 사실 과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비롯된 말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 모 건 신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상으로부터 구전되어 온 관습적 지식들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그저 미신 따위 로 대우받는 것이다.

어릴 땐 어머니의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미신들을 지켜서 손해 볼 것이 없는데 최대한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머니의 행동들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된 것이다. 우리의 삶에 미신들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행동을 삼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하나하나 따져가며 사는 게 조금은 귀찮을지라도, 우주에서 한낱 먼지일 뿐인 인간이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누군가는 미신 따위에 유난이라

며 비웃을지도 모른다. 작게는 수험생에게 참싹떡을 선물하고, 시험을 앞두고는 미역국을 먹지 않는 것부터 크게는 명절에 제사를 올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 이같이 불길을 피하고 조상과 신께 감사하며 행운이 오길 바라는 소중한 마음을 어찌 가벼운 비웃음으로 무시할 수 있을까.

홍콩이라는 타지에서 얼골 생김새, 음식, 날씨, 문화 등 모든 게 낯설었지만 결국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다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태어난 우리는 서로를 깎아내리고 미워하며 선을 긋지만 거대한 우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작은 존재다. 오늘도 하루가 무사히 지나 가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길,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길 소망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수습의 눈 |

3명 중 2명이 금융 문맹? 금융 지식을 쌓는 방법

어느 날 우연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의무 교육 기간 동안 금융 과목을 배우지 않는다는 글을 본 적 있다. 2018년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진행한 세계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 문맹률이 무려 67%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문맹 탈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과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책을 읽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뉴스나 방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을 통해 배우보자는 의견이다. 현재 이슈가 되는 사건은 무엇일까? 바로 홍콩 HSBC 사태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홍콩 HSBC 사태란 홍콩 항셱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에서 큰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손실자들은 은행과 증권사의 불안전판매를 주장하여 금융감독원이 이를 조사하고 있다. 불안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 정보를 꾸준히 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을 통해 배우보자는 의견이다. 현재 이슈가 되는 사건은 무엇일까? 바로 홍콩 HSBC 사태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다음 이슈가 되는 사건은 기업 밸

류업 프로그램이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경제 침체를 겪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이 정책은 증권 시장 개편, 새로운 주가 지수 공개, PBR 등 파격적인 방안이 담겨있다. 한국 정부도 이를 참고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기업의 주주환원, 수익성,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시아 경제 대국 일본이 어떻게 지난 30년간 경제 침체를 겪었는지, 각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부양하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의 관계

음지훈 수습기자

(shadeumij@naver.com)

| 수습의 눈 |

종이 이중

봄의 향내가 서서히 퍼져온다. 나무들은 서서히 자신만의 웃음 잃는 한편, 사람들은 웃을 간소화해 간다. 외투를 벗고 장갑을 내려놓으니 손이 된다. 나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책 한 권을 들고 밖을 나간다.

그러나 책 한 권은 디지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선택지가 아니다. 아니, 선택지 속에 낄 수나 있을까? 안 그래도 책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한국이다. 그 무엇보다 효율이 중시되는 시대에서 '종이책'의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동시에 종이책을 찾고, 사고, 행기는 사람들의 수도 하향 곡

선을 타며 같이 떨어진다. 지하철에서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다른 사람들을 관조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손엔 책 대신形形色색의 작고 네모난 것이 들려있다. 한 권에 한 세상을 담고 있는 책에 비해 이 물체는 하나에 이 세상 전부를 함유하고 있다.

변화는 필연이다. 오랜 시간 인류 곁에 있던 종이 또한 변화 앞에서 무력하다. 손살같이 변하는 소용돌이 앞에서 종이는 너무 잘 찢어지고, 디지털의 보급화라는 급류를 버티기에 종이는 너무 잘 젖는다. 종이책에 대한 내 신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시종일관 종이책을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한 사선이 마냥 고왔다고 하

면 거짓말이다. 있어 보이려 한다는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슬그머니 책을 숨길 때도, 제 발에 저러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도 했다.

고개를 돌려 마주 앉은 사람을 바라봤다. 아직 지하철이다. 그 사람은 작고 네모난 물체를 가방에 집어 넣고 그 대신을 책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무거운 책을 기어코 지하철에 가져와 사람들과 부대끼며 한 장 한 장 넘겨 읽는 것이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종이책을 불편한 짐으로 느끼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다. 돌아보니, 아직 저마다의 이유로 종이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다른 '이중'들이었다.

이중이란 개념을 덕에 가치관이 견고해진다는 나는 단순히 종이의 가치뿐만 아니라 책의 가치, 더 나아가 활자의 가치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책은 저 너머의 세계와 나를 연결해 주는 통로이며 활자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검은색의 보도블록이다. 나는 눈으로 그 활자를 하나하나 걸으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이 유희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종이의 가치가 증명되고 존속된다.

눈이 마지막 검은 보도블록을 떠나 흰 여백으로 나아간다. 한 장을

넘겨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할 때다. 검지로 한 쪽을 꼬집는다. 나머지 세 손가락을 받쳐 들어 올리고, 사르륵 소리와 함께 한 장이 온전히 넘어가면 반대 손의 엄지로 고정한다. 눈은 다시금 검은 것을 따라 흘러간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르륵 소리를 내며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새벽이, 출근길 이, 잠자리가 사르륵 소리로 물들고 있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kyhu@naver.com)

만/파/식/적

비시각장애인의 점자 배우기

이번 겨울방학 중 약 두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에 망원동으로 가서 점자를 배웠다. 방학에 뭘 했느냐는 물음에, 호기롭게 점자를 배웠다고 답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급작스러웠는지, 질문이 쏟아졌는데 구구절절 설명하자니 다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계기를 간략히 말했다. 한 명이라도 점자를 배울 마음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나마 그 이유와 함께 그동안 꾸러왔던 생각 보따리를 풀어본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점자 도서'를 제작하는 봉사를 알게 되어 바로 봉사를 신청했다. 집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까지 편도 약 2시간이 걸리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당시 내게 점자 도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사전 교육을 받고서야 애당초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책을 읽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저 낭독자에 의해서 책을 읽겠거니 하고 무지했다.

'점자'란 평면 위에 일정한 방식으로 짜인 도드라진 점들을 손가락으로 만져서 읽도록 고안된 시각장애인용 문자다. '묵자(墨字)'란 점자에 상대하여 이르는 문자로, 비시각장애인이 쓰는 활자다. 나는 묵자를 점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 묵자 도서를 타이핑하는 봉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묵자가 어떻게 점자로 바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게는 당연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출판물기획전문가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던 그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가 생겼다. 보다 구체적으로, 책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독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도서관을 건립하고 싶다는 꿈이 더해졌다.

수년이 흐른 후에야 나는 직접 점자를 칠 수 있게 됐다. 점자 수업은 △ 한글 자모음 △약자 · 약어 △문장 부호 △숫자 · 수학 기호 △영역 · 로마자 순으로 진행했는데 점점 어려워졌다. 특히나 문장 부호는 아무리 봐도 외워지지 않았고, 손에 잘 익지도 않아서 틀리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점자 공부를 계속했던 이유는 점자를 배우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분명 한몫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수많은 활자와 그림, 영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한정된다. 당장 특수기호만 해도 한정된 점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점자 표기로 인해 선택이 제한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가령, 캔 음료수에 음료수 종류만 적혀 있는 경우, 출입문의 개폐 표기가 잘못된 경우, 그리고 화장실의 남녀 표기가 반대로 되어 있던 경우도.

점자 오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시각장애인들은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하여 내가 점자를 배우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눈에 불을 켜고 또다시 점자를 쫓는다.

송민경 기자

(illidawn012@skuniv.ac.kr)

사설

대학의 '웹 문자'는 어쩌다 '스팸'이 됐나

[Web 발신] [교육성과관리원] 2023학년도 서경대 핵심역량진단 검사... 본교에서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어느 장문 문자의 서두다. 지난해 2학기 시작돼 지금까지도 같은 내용의 문자가 나흘에 한 번꼴로 과도하게 전송되고 있다.

본교의 문자 전송 오남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내 문자 오발송(이른바 '문자 테러')과 유아무아한 사후대처 또한 문제다. 지난해 11월, 학술정보관에서 문자를 잘못 발송하여 영화 자료 이용에 관한 문자가 1분 간격으로 10여통이 발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학교는 어떠한 식의 사과나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러한 실수들과 인일한 대처는 되풀이되어 왔다. 지난 서경대신문 557호에서도 당시 있었던 본교 장학과의 문자 오발송 사태를 보도하고 대학의 부실한 대처 능력을 꼬집은 바 있다. 위와 같은 문자 재발송 및 오발송이 수차례 반복되고, 부서마다 다른 번호로 보낸 문자들이 어지럽게 뒤섞이니 학생들은 피로에 시달린다. 급기야 대학에서 전송하는 모든 문자가 '쓸데없고 귀찮다'는 인식이 싹트며, 몇몇 학생들은 학교 번호를 차단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예로 사항은 아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SMS 형식 문자를 사용하는 탓에 긴 내용의 문자가 문맥과 상관없이 끊어져 두 건의 문자로 전송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학과 내 주요 알림 사항 외 정보들은 학생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전송되는 메일의 양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위와 같은 대학의 운영에 학생들은 크고 작은 불평이 쌓였다.

어느새 '스팸' 취급을 받는 대학의 웹 발신 문자.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먼저 학교는 웹 문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백번 문자를 보내도 학생들이 끝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다른 유인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또한 정보를 고시하는 또 다른 경로나 학교 홈페이지를 보다 접근과 탐색이 용이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교내 공지 사항의 항목을 더욱 친절히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모바일화면 시대에 맞추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원활한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조해 볼 만한 타 대학의 사례를 보자. 한양대학교의 경우, 교내 정보들을 '문자'가 아닌 앱의 '알림'으로 전송한다. '헤이영광 퍼스'라는 앱을 통해 교내 정보 알림과 함께 학생 출결, 학식 정보, 모바일 학생증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 · 관리한다. 알림의 양이 타 대학들의 웹 발신 문자보다 적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복하여 전송되는 메시지가 없고, 앱 내의 알림으로 단일화되어 전송돼 보다 적은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학교가 중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고지하고, 학생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웹 발신 문자 시스템의 개정이 시급하다.

김영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책

응답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 클로버 나혜림



을 건네지만, 정인은 “만약에”를 백번 해도 네가 있어야지.”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유혹을 잡는다.

“만약에”, 필자가 정인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다. 가난에 허덕이며 사는 자신의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다.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정인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다. 중학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담담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외롭고 고달팠을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정인에게 큰 시련이 닥친다.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과 패티를 재사용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로 인해 억울한 화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할머니가 크게 다친다. 정인은 자신에게만 이런 불행이 몰려오는 것이 서러우면서도, 힘든 상황을 혼자 감내하려다가 더 큰 불상사를 만든 스스로가 원망스럽다. 헬헬은 시련을 겪는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나 행복해지는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며 유혹을 건네지만, 정인은 끝까지 제안을 거절하며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신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정인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일까.’ 하지만 현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오늘의 전시회

반복과 중독을 벗 삼은 아티스트 - OPAKE - PANIC



아인슈타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의 아티스트, ‘오페이크(Opake)’는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세상이 천재라 일컫는 이 과학자의 위대한 말을 부정하려 한다.

롯데월드몰 2층 구석 깊숙이 위치한 갤러리 카페, ‘넥스트 뮤지엄’에서는 오페이크의 개인전이 한창이다.

얼핏 보면 그의 작품은 그저 평이한 기성 ‘팝아트’ 작품에 불과하다. 캔버스 위 미니 마우스, 벅스 버니 등의 만화 캐릭터들과 뚜렷한 윤곽선, 대비되는 색채가 가장 먼저 눈에 띄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본 그의 그림은 전혀 다른 감상을 끌어낸다. 말

리서는 그저 기계로 찍어낸 현란한 패턴의 ‘인쇄물’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서 들여다본 캔버스에는 스프레이 페인트와 마카 자국이 연흔처럼 남아있다. 그렇다. 그는 단순한 ‘팝 아티스트’가 아니다. 오페이크는 길 위의 예술인 ‘그래피티 아트’를 근간으로 손수 팝 아트를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8년간 노숙 생활을 하며 알코올과 마약 중독, 그리고 정신병을 앓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자신을 피해하게 만들던 ‘반복과 중독’의 본질을 천착했고, 끝내 그것들을 ‘예술 활동’의 연료로 승화시켰다. 그는 이제 넘치는 일동력의 화가이다. 오페이크의 전시는 ‘반복(Re-)’이 가지는 긍정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작품에서는 ‘Re-construction: 재구성’, ‘Re-petition: 반복성’, 그리고 ‘Re-hab: 재활’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읽을 수 있다.

일례로 그는 우리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 ‘피노키오’를 해체하고 재구성했다. 화가는 캐릭터의 신체 일부만을 떼어내 그리거나, 얼굴에서 눈 표현을 생략하는 식으로 캐릭터를 새로이 공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이미지는 캔버스 위에서 기

하학적으로 반복된다. 동그란 형태의 캔버스 위, 반복과 강박에 완전히 중독된 이 영국 화가의 그림은 흡사 만화경 속 광경 같다. 그의 그림들은 ‘무질서 속의 안정감, 친숙함 속의 낯설’이라는 양가성을 가진다.

너무나도 익숙한 캐릭터인 피노키오에 게 눈만 없을 뿐인데도, 관객들은 저마다의 상상력으로 작가가 남겨놓은 공백을 다르게 채우게 된다. ‘거짓말’의 상징과 같은 피노키오를 여타 관념과 분리한 채 감상하다가, 원과 중첩의 이미지에 의해 떠오르는 거짓말의 속성은 캐릭터와 다시금 연결된다. 이렇게 만화 캐릭터나 거짓말과 같은 ‘일상적 요소들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깊어져 간다. 작품을 감상하는 시선이 그림 외적인 요소에서 점차 개개인의 내적 심상과 가치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본 전시의 제목이 ‘PANIC’인 것처럼, 그는 자신의 작품을 “내가 겪었던 어려움 한 조각”이라 칭한다. 화가는 끊임없는 반복과 강박, 중독을 벗 삼아 자신의 오랜 공황을 한 폭 그림으로 풀어냈다. 창조는 이따금 ‘혁신’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찾아온다.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 전시기간 : 2024. 02. 01.(목) ~ 2024. 03. 24.(일)
· 관람시간 : 월-일 10:30~22:00
· 관람비용 : 무료
· 전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몰 2층, 넥스트뮤지엄

오늘의 드라마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다는 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 솔직하지 못해서 (2010)



▲ 출처 : 채널W

SNS 속 사람들은 모두 걱정 없이 평온한 듯 보인다. 나만 이 세상에서 뒤처진다는 생각이 화려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감추며 우울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내면에도 저마다의 고민과 상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 후지TV에서 방영된 이 드라마는 2010년 처음 휴대폰이 보급되고 트위터가 알려졌던 시기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휴대 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기보다 편의점에서 잡지와 신문을 사서 본다. 전철을 기다리며

남주인공이 손에 쥐여준 따뜻한 캔 커피에 쓰여 있는 ガンバレ!(힘내!)를 볼 때면 서늘한 전철역의 쇠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듯 몽글몽글한 기분이 피어오른다. 아직은 SNS가 세상을 완전히 뒤엎기 전의 순수했던, 캔 커피에 손글씨로 마음을 적어 전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트위터로 알게 된 20대 남녀 5명이 모임을 만든다. 첫 만남에는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의뢰기기 판매원이지만 의사라고 하거나, 기생계 임시교사이지만 고등학교 정

규직 교사라고 말한다. 천성이 나빠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내 모습을 들리기 싫어서, 비겁해서, 타인의 반응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다. 트위터에선 모두가 행복해 보였지만 실은 우울증, 동성애, 타국에서의 외로운 생활, 유산과 같은 각자의 아픔을 숨기고 있었다.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스스로를 명멸케 한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크고 작은 거짓말을 담은 말풍선은 오늘도 사회를 떠돌며 누군가의 심장에 상처의 화살을 쏘고, 찌른다.

어릴 때 바라봤던 20대는 젊음으로 빛나는 성숙한 어른이었다. 그러나 20대가 되어 보니 우리는 너무나도 미성숙하다. 겪어보지 못한 일과 감정들을 처음 마주할 때면 낯설어 두려움에 떠난다.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고픈 아이이다. 흔히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지만 여러 번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들이 심장을 베는 듯하다.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20대들을 응원하며, 필자 스스로도 본인에게 솔직해지자고 다짐한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오늘의 음악

노래를 찾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

1983년 결성된 혼성 그룹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하 노찾사)은 민중가요 노래 패다. 대한민국에 민주화와 노동 운동의 물결이 몰아치던 시대에 각종 집회에서 사용된 민중가요를 만들었다. 앨범 커버의 하얗게 칠해진 사람들은 사랑한 노동자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당대 제도권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반으로 회자되는 노찾사의 2집 음반 '노래를 찾는 사람들2'를 함께 들어보자.



♪ 〈광야에서〉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이 곡에서 광야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는 기존 뜻에서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타국을 의미한다. ‘광야에서’는 다른 민중가요와 다르게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이 아닌 민족의 열과 화합을 노래한다. 음악을 들어보면 이육사 시인의 〈광야〉가 생각나기도 한다. 고난과 시련을 우리민족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민주화의 물결 속에 서로 나누어 다투는 시대에서 우리 민족을 부르짖는 목소리를 가슴에 품고 곡을 감상해 보자.

♪ 〈세계〉

“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상은 잘도 도내 돌아가네”

이 곡을 아는가?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어릴 때는 그저 멜로디가 귀에 잘 익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든 지금 가사를 다시 곱씹어보면 섬뜩하다. 비껴의 풍경이 아무리 변해도 미성 공장의 고된 노동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사 때문이다. 당시 노동자들의 밤낮 없이 일하던 애환을 생각하며 곡을 감상해보자.

♪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피맛한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 곡은 영화 '1987'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으로 유명하다. 노래의 탄생 계기도 전태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불꽃〉 공연을 만들기 위함이다. 은은히 묻어나는 젊은 운동가의 고통과 추억, 고뇌와 극복을 되새기며 마지막 곡을 감상해 보자.

이재근 수습기자 (worm1207@skuniv.ac.kr)

오늘의 장소

유행에 민감하다면 흥대, 성수보다 이곳 어때? - 수원 스타필드



아직 쌀쌀한 날씨 탓에 야외 활동도 좋지 않, 오래 머물 수 있는 실내 공간으로 발길이 향한다. 쇼핑부터 식사, 문화생활까지 모두 한곳에서 즐기고 싶다면 이곳은 어떨까? 바로 ‘스타필드 수원’이다. 이곳은 MZ 세대를 겨냥한 복합 쇼핑몰로, 가족 중심이었던 기존 스타필드와 달리 MZ 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은 흥대, 성수 등의 인기 매장들이 대거 입점해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 하는 이 게임의 팝업 스토어 행사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다. 매장 1층엔 ‘슈퍼마켓’, 카페 ‘노티드’ 등 인기 매장도 자리 잡고 있어 더욱 붐볐다.

쇼핑몰 내부가 넓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매장과 브랜드들이 즐비해 있어 한 층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층마다 매장을 둘러보니 전체적으로 MZ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해 있었다. 필자 또한 관심 있던 브

랜드들을 한곳에서 구경할 수 있어 편했다. 쇼핑몰엔 주인과 함께 방문한 반려견도 많았다. 애견 동반이 가능한 쇼핑몰인 만큼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층마다 마련되어 있다. 펫샵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쉴 수 있는 펫카운터, 애견 운동장이 있는 펫가든도 있다. 필요 시엔 애견 유모차 대여나 배변 봉투를 무료 사용할 수 있다.

눈길을 사로잡는 매장들을 뒤로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수원 스타필드의 하이라이프인 별마당 도서관이 나온다. 별마당 도서관은 휴식과 만남, 책을 주제로 소통하는 열린 문화 공간이다. 4층부터 7층까지 위아래로 시원하게 트여 22m 높이의 웅장한 시공을 자랑한다. 도서관 인근에는 여러 카페가 입점해 별마당 도서관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필자는 그중 카페 ‘비이날’에 방문했다. 이곳은 자리마다 있는 개별 테이블로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LP카페이다. 도서관의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한 의자에 앉아 음악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번 주말, 트렌드의 중심 ‘스타필드 수원’에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이나연 수습기자 (n4yexn@gmail.com)

- 주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75 스타필드 수원
·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연중무휴

오늘의 스포츠

2023 아시안컵서 졌는데도 ‘사람 좋은 웃음’ 보이던 클린스만, 한국 축구에 쏘아 올린 불꽃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월 3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 알자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호주와 8강전에서 극적으로 역전했다. 연장 끝에 승리를 거두며 밤늦게 자지 않고 경기를 본 이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했지만 한국 대표팀은 4강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경기 당시 대표팀이 졌는데도 사람 좋은 웃음 보이던 대표팀 감독 윌트럼 클린스만에 대해 축구팬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진심으로 감독직에 임했다면 선수들을 두고 그리 웃지는 못했을 테지만 그는 허허실실 미소를 띠었다.

결국 지난 2월 16일 대한축구협회(KFA, 이하 축협) 정몽규 회장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을 발표했다. 하여 취임 1년도 채 안 돼 경질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에게 축협은 역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경질에 따른 위약금은 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을 더욱 끓들었다.

지난해 2월 27일 한국 축구 대표팀 지휘를 맡은 클린스만 전 감독의 계약기간은 2026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현지 기준)까지 예정된 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였다. 축협은 당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서 열리는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을 코앞에 두고, 새 감독 선임에 관한 작업 착수에 나섰다. 오는 3월 21일, 26일 이틀에 걸쳐 태국과 예선 2연전을 앞두고 임시 체제로 진행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 지도자인 김기동, 최용수, 홍명보, 황선홍이 후보로 거론됐다.

지난 2월 27일, 황선홍이 A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3월에 한정으로 A매치를 지휘하게 됐다. 태국전 선발 명단 발표를 앞두고 이강인의 발탁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아시안컵 당시 축구대표팀 선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이른바 ‘탁구기트’ 중심에 있던 이강인은 사과문을 올리고, 팬들과 선배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강인은 직

접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에게 사과했고, 손흥민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사건은 일 단락됐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강인을 대표팀 발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인의 국가대표 선발 여부를 놓고 팽팽한 찬반 여론은 정치권까지 번져나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강인이 과연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명단에 오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한편 세 차례에 걸쳐 축협 회장 임기를 지낸 정몽규 회장에게 이번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 및 그를 감독으로 선임한 책임론과 더불어 회장의 역할을 다했는지 질문이 제기됐다. 정 회장은 선수들을 보호하지 못할 망정 불화설을 빠르게 인정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 한다는 KFA의 이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 요구가 빚뻗었다.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던 클린스만은 오히려 경질을 바라고 있던 건 아니었는지, 클린스만이 쏘아 올린 불꽃은 여전히 한국 축구 곳곳에 번져 나가고 있다.

송민경 기자 (llldawn012@skuniv.ac.kr)